

신안군에 전국 춘란(春蘭) 희귀 업체품 한자리에 모였다



신안군은 지난 10월31일에 '2020 춘란 가을대전(大展)' 개막식을 시

신안국민체육센터서 400여 점 전시...136명 수상 “불거리·우수 춘란 자원 수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작으로 2일만에 걸쳐 바다위의 정원 1004점 신안군에서 전국의 춘란 희귀 업체품들이 신안국민체육센터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속에서 어렵게 진행된 만큼 관람객 2m 거리 간격 유지와 발열 체크, 출입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봄에 꽃을 감상하는 화예전시회를 치르지 못한 아쉬움에 있을 감상하는 가을 화예전시회는 (사)대한민국의생물협회(이사장 지승상)가 주최하고 신안군연합회가 주관하는 업체대전으로 전국 애란인들의 참여속에 400여 점이 전시되었으며 난판매와 신안군 농수산특산물 판매전도 함께 운영하였다.

이번 대회 수상자는 국회의장상(서울 노영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박영산 신안), 산림청장상(대전 명정호), 신안군수상(장원 임용철), 국제난문화재단상(동수원 임병현), 전라남도지사상(장원 임용철), 국회의원상(장원 구병주), 신안군의회위원장상(서울 조준형, 부산 한현수) 등 13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안군은 난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대회 3번, 자체전시회를 11번 추진해온 만큼 애란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신안지역에서 발견된 '보름달' '천운소' 등 명품난이

출품되어 우수한 생물자원들이 잘 보존되어있는 자생란의 보고(寶庫)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박우람 신안군수는 “우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애란인들의 사기진작과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 전시회 시상을 국회의장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업체난 판매전과 경매도 함께 이루어져 애란인들은 물론 관람객에게도 불거리와 우수 춘란 자원을 수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한전KPS(주)-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희망터전 만들기’ 사업추진

영광군은 지난 10월30일 한전 KPS(주) 한빛1·2·3사업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수봉)와 함께 영광지역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희망터전 만들기 사업을 공동 진행하였다. 한전KPS ‘희망터전 만들기’사업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전KPS(주)가 함께 2010년부터 전국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한전KPS(주)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임직원의 전문 기술을 통한 재능기부와 후원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가정 및 아동이용 시설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다. 군에서는 이번 영광지역 아동 ‘희망터전만들기’사업에 39,600천 원 후원금을 전달받아 영광지역 저소득층 아동가정 3세대(영광읍, 염산면, 군남면)를 위한 주거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전KPS(주) 한빛1·2·3사업처 사회공헌 담당자는 “지역을 위해 다양



한 분야에 봉사 및 후원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겠다.”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적극 협

력하여 영광지역 아동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국토부 2차관 면담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 사업 건의

김종식 목포시장이 2일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해 지역 현황과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계획 반영 및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이 국비 지원을 요청한 현안사업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국도1호선 기점 연장 등이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맛의 도시 브랜드화 등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 국제행사 유치로 앞으로도 관광객 증가요인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남선의 출발역인 목포역 이용객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목포역으로는 변화에 대응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목포역은 지난 1979년 7월 신축·완공한 데 이어 2004년 4월 KTX 운행으로 증축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화되고, 비좁아 이용객 불편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또한 KTX 수요에 비해 운행횟수가 적어 열차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다.

게다가 목포역을 시·중차역으로 하는 인천·수원, 부산발 KTX 등 다수의 철도건설사업도 준공이 예정돼 추가 수요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목포역의 시설 배치는 고속열차 선로 증설 등을 통한 KTX 증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목포시는 이런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목포역 철도



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기능개선을 통해 KTX를 확충하고, 역사 현대화와 유류부지를 활용해 공원, 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게 시의 구상이다.

김 시장은 이런 사정과 구상을 손차관에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사업에 반영·추진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지정된 목포시 관내 국도1호선의 기점을 연장하고 지정국도로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도1호선은 목포IC에서 목포대교 시점(신항교차로)까지 12.8km만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항만인 목포신항은 동일 구역임에도 관리주체가 목포시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다.

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목포신항, 대불국가산단을 잇는 국도1호선이 국가산업 물류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목포신항 경계까지 14.1km로 기점을 연장하여 지정국도로 일괄 관리하고, 국가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읍 불무공원 국화꽃 보러오세요”

국화·페쉴리아·역새 등 다양한 화종으로 늦가을 군민 맞이



무안읍 불무공원에 무안군의 군화인 국화꽃이 활짝 피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안군은 가을을 맞이하여 무안

군의 군화인 국화를 알리고자 불무공원 내 중앙광장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주변에 화분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꽃길을 조성했다. 국화와 함께 페쉴리아, 수크령,

역새 등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꽃을 전시하여 한층 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했다.

꽃길은 공원을 찾는 군민들이 가을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국화꽃은 다음달 20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안읍 중심가에 위치한 불무공원을 군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꽃길을 조성하였다”면서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활짝 만개한 국화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불무공원 내 연못을 매립하여 어린이 물놀이장, 오토 놀이터, 야외공연장, 휴게쉼터를 확충하는 등 주민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초·중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암군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행복한가정상담센터와 함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11회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인 ‘안전하게 담당하게’라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젠더 감수성 향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 폭력의 원인과 문 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대처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및 삼호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설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영암=조대호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 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